

# “목적외·장기 복용 심각한 부작용 초래”

### ‘구충제로 비염 등 치료 효과’ 온라인 글 이후 판매 급증 의사·약사 등 의료전문가 “기생충 치료로만 사용” 경고

최근 온라인상에서 사람용 구충제 알벤다졸로 암·비염·아토피·당뇨 치료에 효과를 봤다는 글들이 잇따르면서 알벤다졸 매출이 급증,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알벤다졸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0일 제주시내 약국 10여 곳을 확인해본 결과 일부 대형 약국을 제외하고는 알벤다졸이 이미 다 팔렸거나,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관계자들은 지난해 동물을

구충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후 사람용 구충제인 알벤다졸에 대한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내 한 대형 약국 관계자는 “최근 알벤다졸 판매량이 5배가량 급증했다”며 “우리 약국의 경우 재고를 미리 대량 확보해뒀 물량이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일반 약국 등에서는 거의 품절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국 관계자는 “한 고객은 당뇨·비염 등에 좋다는 온라인 글을 보고 왔으며 알벤다졸 30개를 사 갔

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알벤다졸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제약회사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 품귀 현상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알벤다졸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 등은 알벤다졸의 부적절한 복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알벤다졸을 기생충 감염 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알벤다졸 장기간 복용 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있지 않으며, 압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당뇨

와 같은 만성질환을 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거나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의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도 지난 8일 구충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두통, 간기능 장애, 혈액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호 제주도약사회장은 “알벤다졸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강제적으로 구매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구매가 쉽지는 않겠지만 치료 목적에 맞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폭설내린 한라산... 1100도로 제설작업 30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 입산이 금지되고 일부 산간도로가 통제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한라산 북서쪽에 39.0cm의 눈이 내린 것을 비롯해 진달래밭 37.1cm, 아리목 21.3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사진은 제설차가 1100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모습. 강희만기자

###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제주대 학위수여식 연기

제주대학교의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일정이 변경됐다.

제주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가 대규모 단체 행사 개최 등을 자제토록 함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제주대 학위수여식은 당초 2월 14일 오전 10시30분 아라뮤즈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번엔 변경된 일정은 2월 21일 오전 10시30분 아라뮤즈홀이다. 진선희기자

### 신구간 나눔장터 행사 취소

제주시는 2월 1일 종합경기장 야구장 인근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신구간 나눔장터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 나눔장터 행사취소 결정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제주에 상륙하는 것은 물론 확산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행사 개최여부와는 별개로 나눔장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가구 무상수거 체계 ‘폐가구 재사용사업’의 일환인 물품기증 접수 업무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재사용가능 물품 기증을 원하는 시민들은 생활환경과(728-3182-7)로 연락하면 된다. 고대모기자

### 대법원 “2018년 제주도노인회장 선거 무효”

지난 2018년 치러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이하 제주도노인회) 회장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가 제주도노인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도노인회는 지난 2018년 3월 19일 A씨와 당시 회장이었던 B씨가 후보로 나선 회장 선거를 실시해 16표 중 11표를 획득한 B씨를 선임 회

장으로 선출했다. A씨는 5표를 획득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선거가 규정을 위반한 채 진행됐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 직전 제주도노인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등재해야 하는 선임연합부회장과 선임이사 7명을 자의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노인회 측은 이사 임면에 대해 권한이 있는 회장이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일부 이사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B씨에 의해 일부 임원을 배제한 채 작성된 것으로 운영규정에 위반된다”며 “A씨와 B씨의 득표차가 6표이고, 선거인에서 배제된 임원이 7명인 점에 비추면 운영규정 위반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노인회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함에 따라 제주도노인회는 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상민기자

### 영리병원 재판 1년 2개월만에 시작 제주지법 제1행정부 4월 3일 첫 변론 진행

#### 진료조건 적법성 공방 예상

국내 1호 영리법인인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놓고 벌이는 법적 다툼에 대한 재판이 소송이 제기된 지 1년여 만에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해 2월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을 오는 4월 3일 오후 3시 30회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2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녹지 측은 재판이 지연되자 지난해 10월에는 법원에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녹지측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며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

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인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녹지 측은 제주도가 지난해 4월 17일 법정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개원 허가마저 취소한 것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 것이어서 법적 문제가 없고, 개원 허가를 취소당한 책임도 법정 기한을 넘겼던 녹지 측에게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778억원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 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2017년 7월 완공됐다. 이후 제주도와의 갈등 속에 개원 허가가 취소되면서 현재 병원은 텅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피자 대접’ 원 지사 또 선거법 위반?

#### 제주선관위 “현재 조사중”

원회록 제주도지사가 또 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원 지사가 도내 한 취업지원 기관에 피자 25판을 선물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원 지사가 선정한 피자는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것이며, 금액은 6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 지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사주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원 지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당시 현장이 담긴 CCTV를 확인하는 등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어렵다”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 혹은 선관위 내부에서 주의·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년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송은범기자

### “관광객 직접 응대하는 노동자 보호조치 시급”

제주관광서비스노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관광객을 직접 응대하는 7만 관광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응대하는 관광서비스 노동자들은 불안감을 갖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은 7만 관광산업 노동자와 도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4만원 할인!**  
정품 필터 증정

**방수 IPX5**

**만유 직관 500만원 상당**

BD-N443

겨울 필수품 비데 할인 혜택받고,  
**만유 직관의 행운까지!**

12월 24일 - 12월 31일

방수 비데  
특기 할인판매  
**노비타 컴포트 비데**

정품가 299,000원  
할인 판매가 **259,000원** [4만원 할인]  
[무료 설치 서비스]

인기 모델 파격 혜택!  
1년치 정품 필터 [2개]

BD-N443의 주요 기능!

- feature 01 혁신적인 설계로 방수와 탈취 기능이 동시에 분체 IPX5 / 리모컨 IPX7
- feature 02 인체공학적 설계 곡면 디자인 시트
- feature 03 한번의 조작으로 세정과 마시저를 동시에

---

노비타 구매 이벤트  
**박지성도 만나고,  
만유 직관의 행운까지!**

응모방법 : BD-N443 구매하고 홈페이지 응모  
응모기간 : 12월 24일 - 12월 31일  
당첨자 발표 : 1월 6일 (개별 통보)

|          |         |
|----------|---------|
| 만유 직관 행운 | 에어팟 2세대 |
| 1명       | 10명     |
| 맨체스터 맨체  | 박지성 팬미팅 |
| 15명      | 200명    |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  
욕실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하라  
**노비타 라인핏**

☆3년 무상 A/S☆

BD-AFE50N 229,000원

3way 노즐

방수 IPX5

BD-AE91 269,000원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신광로터리 ● 빙스 ● 오양병원 ● 마린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 제민일보 맞은편) ▲ 공항